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7, pp.237-247
<https://doi.org/10.29212/mh.2018..107.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 평]

‘軍事’, 韓中關係史의 새로운 視覺

김경록 지음, 『조선초기 한중군사관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林常薰*

최근 한반도에 薰風이 불어옴에 따라 ‘統一’에 대한 기대가 한창 부풀고 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는 미국·중국 등 강대국의利害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과의 관계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듯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분야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중 이미 비슷한 문제에 대해 고심했던 우리 선조들의 경험을 통해 현재의 우리는 교훈을 얻고, 더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歷史學’은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와 미래를 탐구하는 일종의 ‘未來學’인 것이다.

역대 한중관계 속에서 특히 元末明初의 14세기 중후반은 현재 우리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중국 대륙에서는 元과 明의 교체가 진행되고, 얼마 안 있어 한반도에서도 역시 高麗를 무너뜨리고 朝鮮이 세워지는 激浪의 시기였던 것이다. 원의 몰락과 신생국 명의 탄생, 그 사이에 낀 고려의 대처, 그리고 서서히 권력을 장악해가는 조선의 건국 세력과

* 順天鄉大 中國學科

대중국 관계 설정, 이 시기 약 반 세기에 걸친 한중 간의 외교전은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긴박하고 치열했다. 학계에서도 그간 이 시기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많은 연구성과를 쌓아왔다.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고려와 원·명, 혹은 조선과 명의 전반적인 관계에 집중된 연구부터 세세하게 교역을 통해 당시 한중관계를 고찰했던 연구까지 각 분야에서 이 시기 한중관계를 다루어 대략적인 윤곽을 그려냈다.¹⁾ 하지만, 최근 이 시기 한중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다룬 연구성과가 등장했다. 그것은 바로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金暎綠의 최근작 『조선초기 한중군사관계사』²⁾로 본서는 전문학술서로서 높은 가치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 취했던 선조들의 경험이 절실한 현재의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여러 난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1) 국내의 연구로는 강상운, 「여명(한중) 국제관계연구」(『중앙대 논문집』, 서울: 중앙대학교, 1959), pp.235-268; 고석원, 「여말선초의 대명관계」(『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1977); 황운룡, 「고려 공민왕대의 대원명관계 -관제변개를 중심으로」(『동국사학』 14, 서울: 동국대학교, 1980), pp.1-14; 김성준, 「고려와 원·명관계」(『한국사』 8,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1), pp.177-203; 황원구, 「여말선초의 대명관계」(『한국사의 재조명』, 서울: 민성사, 1986), pp.305-311; 김순자, 「여말선초 대원·명관계 연구」(『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2000);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역사와 현실』 64, 서울: 한국역사연구회, 2007), pp.197-231; 「여말선초 국제질서의 변화와 조·중관계」(『세계 속의 한국사』, 과주: 태학사, 2009), pp.155-184, 임상훈, 「明初 洪武帝의 말 強要와 麗明關係」, (『中國史研究』 99, 대구: 중국사학회, 2015) 등의 훌륭한 연구 성과가 존재한다. 외국의 연구로도 張士尊, 「高麗與北元關係對明與高麗關係的影響」(『綏化學院學報』 1, 中國 黑龍江: 綏化學院, 1997), pp.48-50; 薛瑩, 「明洪武年間明朝與高麗朝關係略論」(『社會科學戰線』 4, 中國 吉林: 吉林師範學院, 1997), pp.165-169; 刁書仁, 「洪武時期高麗·李朝與明朝關係探析」(『揚州大學學報』 8-1, 中國 江蘇: 揚州大學, 2004), pp.58-63; 姜龍范·劉子敏, 「明太祖在位時大明與高麗的關係」(『延邊大學學報』 2, 中國 吉林: 延邊大學, 1998), pp. 61-65; 末松保和, 「麗末鮮初に於ける對明關係」(『青丘史草』 1, 日本 東京: 笠井出版印刷社, 1965), pp.295-485; 宮崎市定, 「洪武から永樂へ -初期明朝政權の性格-」(『東洋史研究』 27-4, 日本 東京: 京都大學, 1969) 등이 존재한다.

2) 김경록, 『조선초기 한중군사관계사』 상·하(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그간 조선시대 한중관계의 다양한 분야에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아온 저자³⁾는 스스로 ‘韓國史’ 전공자라고 겸허히 말하지만, ‘中國史’ 전공자인 필자가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중국사에도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⁴⁾ 이처럼 한중관계사에 박학한 지식을 가진 저자는 ‘軍事關係史’라는 새로운 용어와 시각을 중심으로 당시 한중관계의 새로운 일면을 서술해 나갔다. 평소 저자의 글에 흥미를 가지고 拜讀해왔던 저자 역시 본서의 問世에도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 특히 책의 제목에 기술한 ‘군사관계사’라는 생소한 용어에 큰 호기심을 가지고 책을 읽어갔으며 매우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본서의 장절별 대략적인 내용과 필자가 느낀 점 등에 대해 略述하겠다. 먼저 본서는 약 740여 쪽에 달하는 상·하권의 방대한 양으로 이루어졌고, 아래와 같은 목차로 나뉜다.

제1장 조선시대 군사관계사란 무엇인가?

제1절 조선시대 군사관계사 개념

제2절 조선시대 군사관계사와 군사전략

제3절 조선시대 군사와 외교의 관련성

제2장 변화와 혁명 : 여말선초 한중군사관계의 급변

-
- 3) 저자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약 60여편의 많은 논문과 저서를 내고 있기에 여기에서는 일일이 그 성과를 거론하지 않겠다.
- 4) 한 예로 저자는 최근 明太祖 洪武帝에 큰 관심을 가지며, 257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明太祖實錄』을 정독하였으며, 실제로 필자가 본 저자의 『명태조실록』에는 각 쪽마다 주요한 내용을 기록한 표지가 뽁뽁하게 들어차 있었다. 저자는 최근 홍무제가 명의 기초를 닦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도나 사상이 명대 전반을 거쳐 청대에게까지 깊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주목하여 홍무제에 관한 다각도의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그 성과로 저자는 홍무제의 법률정책(『명초 홍무제의 국가통치 구상과 『대명률』』, 『법사학연구』 53, 2016)·군사정책(『명초 홍무제의 군사인식과 군사정책』, 『군사』 99, 2016)·종교정책(『명초 홍무제의 종교정책과 통치구상 - 불교와 도교를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46, 2016) 등에 다양한 분야에서 홍무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내놓았다.

제1절 원 중심 국제질서에서 명 중심 국제질서로 전환

제2절 공민왕의 개혁정치와 여·명관계의 전개

제3절 조선의 건국과 조·명관계의 긴장

제3장 건국과 정통 : 15세기 초 명 중심 국제질서와 군사관계

제1절 홍무·영락연간 명 중심 국제질서의 정립

제2절 조선초기 종계변무와 군사관계

제3절 태종대 국방정책과 군사외교

제4장 분화와 대응 : 15세기 중기 조선의 국제인식과 군사정책

제1절 몽골의 흥기와 명 중심 국제질서의 변화

제2절 세종대 국방정책과 군사관계

제3절 세조대 부국강병과 군사정책

제5장 안정과 국방 : 15세기 말 한중군사관계의 전개과정

제1절 동북아 국제정세와 명 중심 국제질서의 정착

제2절 조선의 국방체제 정비와 군사정책

제3절 15세기 명 중심 국제질서와 조선의 해양정책

저자는 14세기 중후반 元末明初와 麗末鮮初 시기부터 15세기 말까지의 조선과 중국의 관계사를 ‘군사’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였고, 이 개념은 시종일관 본서를 관통하고 있다. 본서의 핵심 개념이지만, 다소 생소한 용어인 ‘군사관계사’란 용어에 대해 독자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저자는 본서의 서두에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저자는 조선시대 군사관계사의 핵심인 군사 분야의 외교 즉, ‘군사외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조선시대 군사외교는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조선의 국가목표에 따른 외교목표 및 군사목표 달성을 위해 결정된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군사부문의 대외적 활동으로 개념 정의할 수 있다.

저자는 제1장에서 약 100여 쪽에 달하는 적지 않은 분량을 통해 ‘군사관계사’란 용어를 定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저자의 적극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면서도 워낙 낯선 용어이기 때문에 여전히 독자들의 쟁론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자 역시 이 점을 확실히 인지하였는지 ‘선행적인 개념정의’라고 인정하며 향후 보다 진척된 연구를 통해 수정·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제1장의 제1절은 이렇듯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려는 어려운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그 후의 내용은 조선과 명의 군사에 관한 각종 제도와 개념에 대한 설명이 많아 배울 점이 많았다. 특히 2장에서는 명과 조선의 군사제도의 근원이 되는 고대 중국의 군사제도에 대한 내용이 많아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는 묘미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제3장에서는 군사외교 외에 기타 여러 형식의 조명 간의 외교에 대하여 다루었다. 조명관계의 핵심이었던 朝貢과 冊封이라는 큰 개념에서 시작하여 이를 실천하는 세세한 각종 제도까지 상세하게 다루어 조선시대 대명외교의 흐름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었다.

저자는 제1장에서 군사관계사란 용어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2장부터는 원말부터 시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중 간의 군사관계사를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본서의 대단원의 서막인 여말선초 시기의 격변하는 군사관계사를 다루었다. 제1절에서는 원말의 급변하는 중국의 군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시작하였다. 원말의 혼란 상황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규명하며, 紅巾賊의 亂과 朱元璋·陳友諒과 같은 群雄들이 세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다. 제2절에서는 제1절의 원말 혼란기에 즉위한 고려의 恭愍王과 그가 원과 명

사이에서 취한 군사정책에 대해 소상히 다루었다. 흔히 공민왕은 反元 親明政策만을 실시했던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으나, 저자는 고려와 원 명 간의 군사관계사를 상세히 다루면서 사실 공민왕은 親明性向이 강했지만, 실상은 고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洪武帝의 遼東都司를 통한 고려의 압박 등에 강한 불만을 품은 공민왕은 北元과 交通하는 행위를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복잡다단한 공민왕대 고려의 對북원·명과의 관계를 저자는 군사라는 독특한 시각으로 다루어 이 시기 한중관계의 긴장된 일면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제3절에서는 조선의 건국 이후 명과의 긴장관계를 다루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스스로 명의 국제질서에 편입하였다. 하지만, 당시 조명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홍무제는 고려를 전복하고 새운 신생국 조선을 탐탁지 않아 했다. 조선 태조는 홍무제의 인정을 받기 위해 건국 초기부터 國號를 정해달라는 등 명에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돌아온 건 홍무제의 각종 위협, 무리한 강요들과 ‘朝鮮國王’이 아닌 ‘高麗權知國事’의 직함 등뿐이었다. 이러자 鄭道傳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은 명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여 양대 신생국 간에 심각한 긴장관계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 시기 조선의 지속적인 북진 정책과 女眞 招撫에 강한 불만을 품은 홍무제의 鐵嶺衛 설치 통보는 그 정점을 찍었는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홍무제의 병사와 王子의 亂으로 정도전이 암살당하며 강경파의 세가 꺾이자 사태는 일단락을 맺었다. 저자는 이 시기 이러한 일련의 조명 간 군사관계사를 서술하며 군사 및 군마 등에 대한 상세한 수치와 조선과 명의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보다 생동감 있게 당시의 긴장관계를 재현해 내었다.

제3장에서는 명과 조선의 건국 초기 긴장관계를 벗어나 ‘典型的인 朝貢冊封關係’를 맺는 과정에 대하여 다루었다. 명과 조선의 강경파였던 홍무제와 정도전이 사라지자 양국 관계에 새로운 전환기가 도래하였다. 靖難의 役을 통해 황위에 오른 永樂帝는 명 중심 국제질서의 확립에 박

차를 가하며 사망으로 명을 확장시켜나갔다. 5차례의 몽골 親征, 鄭和의 大航海, 安南 정벌 그리고 티무르 제국과의 전쟁 불사 등은 영락년간 명의 대대적인 확장을 나타내는 사건들로서 폐쇄적인 성격이 강한 명대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 과정에서 오직 조선은 명의 침략이나 위협을 받지 않고 오히려 매우 우호적이며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저자는 제1절에서 洪武·永樂年間の 명 중심 국제질서의 확립과 조명간 군사관계의 확립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시기의 군사제도는 명과 조선 군사제도의 기초가 되며 清代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필자는 본절에서 여러 사료를 통해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였다. 이는 향후 관련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2절에서는 조선 太祖 李成桂가 고려말 權臣 李仁任의 후손이라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한 ‘宗系辨誣’와 이를 둘러싼 조명 양국의 군사관계사에 대해 다루었다. 종계변무 문제는 명대 전반에 걸쳐 조선이 처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중대 외교 사안이었다. 저자는 본절에서 종계변무가 최초로 시작하는 『皇明祖訓』을 통해 그 발생과정을 상세히 다루며 이와 관련한 양국의 군사관계사에 대해 다루었다. 제3절의 太宗代 국방정책과 군사외교에서는 조선 태종대의 가장 큰 현안인 女眞族에 대한 정책과 정난의 역에서 발생한 漫散軍人 문제를 다루었다. 여진족 문제는 명초 홍무년간부터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명은 이미 조선의 진출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영락년간 명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조선 태종은 명의 요구에 부응하며 가능한 최소의 인원만 명에 刷還하는 정책을 펼쳤다. 저자는 또 조선의 만산군인 쇄환 문제를 군사관계사의 각도에서 다루었는데, 이를 통해 태종대 조명관계가 우호적인 관계로 정착하면서 발생했던 긴장 국면을 독특한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土木堡의 變 이후 명에서 발생한 대대적인 변화에 대해 다루었다. 제1절에서는 몽골의 흥기와 토목보의 변 이후 발생한 명 중

심 국제질서의 변화를 살펴봤다. 영락년간의 대대적인 확장 이후 명은 소극적인 폐쇄 정책으로 돌아섰다. 물론 仁宣의 治라는 중흥기가 있었지만, 이후 명은 우매한 황제의 연속 출현과 환관의 점차적인 정권 장악으로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군사 정책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제2절과 제3절에서는 명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어난 世宗과 世祖代의 군사관계사에 대해 다루었다. 특히 제2절 세종대의 군사관계에서는 조선의 事大交隣이라는 외교 정책에 주목하여 명·일본·여진과 조선의 군사관계사를 고찰하였다. 면밀한 사료 검토를 통해 세종대의 군사력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마도와 여진 정벌의 상세한 내용을 다루었다. 제3절에서는 점점 확장하는 여진 세력에 대한 조선의 군사관계사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이 시기는 명과 조선의 연합군이 建州女眞을 정벌했던 것으로 유명한데, 저자는 다양한 사료를 통해 본서에서 이 과정을 자세히 재현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 이후 여진족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후에 명의 멸망을 초래하기 때문에 당시 명과 조선, 그리고 여진의 군사관계사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저자는 당시 조명의 군사제도뿐만 아니라 당시 참전했던 여러 장수들의 특징 등 세세한 부분까지 고찰하여 이 시기 동북아 국제관계 변화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

저자는 마지막 제5장에서 한중군사관계사를 최종 정리하면서 본서를 마무리하였다. 필자는 제1-4장과 같이 시간의 순서대로 명의 멸망과 조선 중기의 군사관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저자는 15세기 말까지의 군사관계사만을 본서의 대상으로 삼아 마지막 부분에서는 명과 조선의 대몽골·여진 군사정책을 정리하는 것으로 본서의 막을 내렸다. 특히 저자는 명대 군사정책 이해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명대의 公文體系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저자가 약 50쪽에 달하는 적지 않은 분량을 통해 자세하게 정리한 명대의 공문체계는 명칭사 전공자뿐만 아니라 조선사 전공자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一讀을 권한다. 제2절에서는 조선의 국방체제와 군사정책을 다루었다. 저자의 글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본서에서도 많은 사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기 좋게 잘 정리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필자는 특히 조선의 典章制度를 기록한 『經國大典·兵典』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였다. 필자가 정리한 도표는 일종의 工具書로 활용이 가능해 향후 많은 同學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서의 마지막 절인 제3절에서 저자는 15세기 명 중심의 국제질서와 조선의 해양정책을 다루었다. 명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명이 취한 海禁政策과 명초 홍무제의 조선 사신의 陸路를 통한 入明 금지 등의 조치와 이에 대한 조선의 대처를 살펴보았다. 또한 저자는 조선의 해양정책이 소극적인 점에서 출발하여 壬辰倭亂을 고찰하였으며,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조명 연합군과 일본의 군사관계사를 자세히 다루며 본서를 마무리하였다.

필자는 본서를 배독하며 아래와 같은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먼저 ‘군사관계사’란 모호한 용어의 문제이다. 『조선초기 한중군사관계사』라는 책의 제목을 보고 한중 양국의 군사를 중심으로 관계사를 다루겠다는 저자의 의도를 느낄 수 있으나, ‘군사관계사’란 표현은 여전히 낯설기만 하다. 물론 저자는 제1장에서 군사관계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생소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추상적인 내용을 사용하여 논술하다 보니 더욱 이해가 쉽지 않았다. 이보다는 ‘군사를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달았다면 독자들도 쉽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고, 저자 역시 제1장의 내용을 더 쉽게 서술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둘째는 문제라기보다는 독자로서의 아쉬움으로, 본서의 내용이 조선 건국초부터 15세기말까지에만 국한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책의 제목에서도 명기하였고, 홍무제가 쌓은 기초가 명말까지 큰 변동 없이 지속되었음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제2장부터 시대순으로 명과 조선

의 군사관계사를 더듬어가며, 마지막 제5장에서는 15세기 말의 한중군사관계를 다루었다. 그런데 본서의 마지막 절인 제3절에서는 조선의 해양정책을 다루면서 임진왜란을 주로 언급하였다. 임진왜란은 16세기 말에 발생한 사건으로 사실상 시대를 명말까지 확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임진왜란이라는 대형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한중일 군사관계사를 논해도 충분히 여러 권의 저서가 될 정도의 분량이 되리라 생각하여 간략하게 언급하는 수준에서 넘어간 듯하나, 조선 초기에만 머물다보니 뭔가 갑작스레 내용이 단절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실 명말의 임진왜란과 여진과의 전쟁은 더욱 명초의 전쟁들보다 더욱 빈번하고 대규모였기 때문에 더욱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다. 이와 같은 아쉬움은 저자가 향후 이어지는 연구에서 다룰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느낀 문제는 可讀性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과 장절의 제목과 실제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사료를 이용하여 도표의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많은 내용들이 雨後竹筍 격으로 난립하여 가독성을 해쳤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서에서 저자가 정리한 많은 도표들은 여러 동학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지만, 불필요한 내용들 역시 적지 않다. 이들을 과감하게 삭제했다면 더욱 보기 좋은 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제5장 제1절에서는 제목과 내용이 부합하지 않았다. 명 중심 국제질서의 정착이라는 제목과는 달리 실제로는 명대 公文體系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명의 군사정책을 포함한 명의 제반 정책에 대해 이해하려면 명대 공문체계에 대한 선행지식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이 공문체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역시 연구자들이 工具書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제목에 ‘명대 공문체계’라는 말을 간접적으로나마 명기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

본서는 비록 위와 같은 소소한 문제가 있지만, 이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역사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매우 유익한 책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저자는 주전공인 조선사 외에도 『明太祖實錄』이나 『明會典』 과 같은 중국 史料 역시 다량 정독하여 명대사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다. 이러한 功力을 바탕으로 풀어나간 본서는 시대의 큰 흐름과 함께 여러 제도의 상세한 설명, 일목요연한 정리로 명대사와 조선사 연구자 모두가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강대국 사이에서 外交에 신중해야 하는 현재의 우리에게 본서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익힐 수 있는 良書이다.

한 가지 다시 강조하자면, 저자가 圖表로 정리한 많은 내용들은 후에 이 분야 연구에 중요한 工具書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더욱이 마지막에 약 100여 쪽을 할애한 부록 중 ‘조선초기 한중군사관계사 연표’의 내용은 조명 양국 군사외교의 중요한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이 시기 조명관계의 대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향후 이 분야 연구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다.

끝으로 저자의 다음 연구성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본서의 一讀을 추천하며 書評을 마무리한다.

